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교사규제행동과 대처법에 대해서

—일본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이 화정

요약: 똑똑한 전화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그 과다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의 건전한 정신건강과 학습의 방해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다현상에 대해서 교육적인 대응방법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또한 어떤 방향을 사회적인 과제로 시사해야 할지, 교육적인 대응방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 및 제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대학생들의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교육상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대학생들 자신이 교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교사의 강경한 규제행동을 타당한 행동으로 바라보는 찬성그룹이 전체의 55% 수준이었고 반대하는 의견은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 (경우에 따라서는 결석처리) 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로서는, <남들에게 민폐>, <교사에 대한 권위준수>, <학생으로서의 본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이유로서는 <출석점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0 점 처리는 과잉반응이다>, <급한 불일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대처방법으로서는 <한번 주의주기>, <벌점>, <여러차례 주의>, <퇴실>, <결석취급> 및 <회수> <방치>, <성적관련충고>, <교사의 수업개선>, <가방안에 넣기>, <앞자리로 이동>, <반성문쓰기> 및 <옆에서 감시> 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면 적절한 교사의 개입과 관여가 필요하며 학생들에게는 평소부터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유도적으로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통해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수업형태를 유지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수업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방향성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스마트폰의 ‘친숙해지기 쉬운’ 특징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수업방안을 모색하면서 스마트폰의 수업이용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바라본다.

키워드: 스마트폰 과다사용, 수업일탈행동, 교사규제행동, 대처방법, 일본 대학생

1. 서론

“미디어 역사는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다”

이는 ‘기술과 사람, 정부와 시민의 공존’ 을 주제로 열린 ‘서울디지털 포럼 2012’ 에서 나온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 390 호, 2013 재인용).

이 말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의 존재가 미디어의 역사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전세계의 사회문화적인 조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스마트폰의 세계보급대수는 10 억 380 만대 (2012 년 미국 시장 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어널리틱스

(SA; Strategy Analytics)) 로 전세계 인구 7명 중의 1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KT 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5년 모바일 트렌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24.5%로써, 역사상 최초로 PC 보급률 20%를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한국의 보급률은 83%로 세계 4위로 나타났다. 1위부터 3위까지 나열하면 아랍에미리트 (90.8%), 싱가포르 (87.7%), 사우디아라비아 (86.1%) 가 상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보급률이 아직 53.9%로 하위권 (세계순위는 43위) 에 속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인구의 절반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대별 스마트폰 보급률에 대한 <하쿠호도 DY 홀딩>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특히 15세 -19세가 87.3%, 20대가 82%, 30대가 64%로, 특히 고등학생을 비롯한 젊은층의 보급률이 높고, 반대로 50대가 39.7%, 60대가 20.3%의 비율로 60대 이상의 소지율이 매우 낮게 보여졌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인구세대적 비율이 반영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거리가 넘쳐나는 스마트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또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은 실생활에 다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전화소통을 위한 휴대전화의 기능은 물론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터넷에 직접 접속해서 데이터의 송수신 및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의 전원을 켜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카카오톡 등의 무료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가볍게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보 등을 즉석에서 찾아보거나 뉴스를 통한 새로운 정보수집을 하고, 개인의 스케줄관리나 은행거래 등등,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으로 인해 점점 사람들은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한 순간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어 놓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울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마트폰은 당장 입고 나갈 옷이나 마시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편리하고도 다양한 기능이 많은 스마트폰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이 교육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아직 성장단계인 아이들이 소중한 하루의 많은 시간을 절제 없이 스마트폰을 손에 넣고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 이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조사 (2013) 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11.8%로, 전년 (2012) 대비 0.7%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0대가 25.5%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15.0%, 30대는 8.2%, 40대는 5.0%로, 전체적으로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률이 30대 이상 성인의 3배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4.1시간으로써, 중독자의 경우는 5.4시간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1회 평균 14분씩 하루 23차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폰의 사용용도에 대한 연구에서는 카카오톡 및 SNS 사용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화 본래의 목적인 음성통화목적은 8%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다 (박미진 등, 2012).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보고하는 Rauschenberger (1995)의 연구에 의하면, 스마트폰 중독과 강박증, 불안, 적대감, 정신증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정신증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심각하며, 우울, 정신증, 대인기피증, 불안 등의 부작용이 유발된다고 보고하였다 (박미진 등, 2012 재인용).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도 남녀대학생의 48.3%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신문, 2011), 스마트폰이 없으면 학업, 대인관계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 2013). 특히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중독이 되면 종합적인 사고와 사회성 등을 관장하는 우측 전두엽의 활동이 저하되며,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우측 전두엽의 활동장애가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장애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러한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스마트폰의 강한 자극은 좌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는 반면 우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 또래 관계, 사회성발달에 있어서 더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또한 정신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서 주목받고 있는데 바로 <거북이목 증후군> 이 대표적이다. 이 증상은 보통 나이가 많은 연배자에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다보면 목을 앞으로 빼거나 깊이 숙이고 장시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자세로 되기 쉬운데 최근 젊은층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19세 전후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스마트폰이 보급된 일본에서는 특히 수년 사이에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수업목적외사용이 눈에 띄고 있다. 보통 대학교에서 보여지는 학생들의 일탈행동이라고 하면, 대리출석, 잡담, 수업중에 다른과제하기, 교사에 대한 반항행동 등을 들 수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한 일탈행동 (수업시간내내 수업내용과 관계없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SNS 사용, 채팅 등) 이 문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대학교 수업은 대부분이 교수의 강의를 기본으로 한 교수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100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수업은 소규모 수업에 비해 교수-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소극적으로 진행된다. 즉 강의식 교수법은 학습자 개인의 성과나 학습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업진행에 비중을 두고 있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제나 통제를 가하지 않고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언어수업과 같은 소규모 수업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및 태도가 수업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장시간에 걸친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은 수업진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의 정신건강과 학습환경에 방해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다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응방법으로 대처해가야 할 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제지해가야 할 지 교육적인 대응방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수업일탈행동의 대표적인 양상으로서 일본의 젊은층의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대해서 주목하고,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 에 대한 생각과 그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수업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있는 수업 (예를 들어, 50 명이하 소규모의 제 2 외국어 수업) 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수업외사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수업외사용 및 교사의 규제행동에 관한 대학생들의 의식수준을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자기통제의식을 활성화해갈 수 있는 효과적인 교사의 대처방

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조사내용 및 대상

3.1 조사일시

2015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 (각 대학교 별로 한국어 수업시간에 실시)

3.2 조사내용 (자유기술)

가. 수업일탈행동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 (1) 교사의 규제행동 (주의, 벌점처리, 결석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2)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한 찬성과 반성의 여부
- (3) 찬성 혹은 반대의 이유에 대해서

나. 수업일탈행동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방법

(“자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자유기술)

(가)의 경우, 먼저 (2)에 대해서는 수업일탈행동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 (주의, 벌점, 경우에 따라서는 결석처리)에 있어서 자신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과 (3)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찬성 혹은 반대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하였다.

(나)의 경우는, 만약에 자신이 지금 교사의 입장이라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수업일탈행동 (스마트폰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자유기술하게 하였다.

3.3 조사대상 (도쿄 수도권내의 3개 대학교의 학생 총 95명)

조사대상의 대학생들은 도쿄에 위치하고 있는 세 곳의 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로써 한국어를 선택하고 주 1회 이상 한국어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교는 모두 4년제 종합대학교이며 유명사립대학교이다.

이번 조사양케이트는 각 대학의 가을 학기 첫수업 시간에 실시되었다. 양케이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기에 한국어 수업을 이수했거나 새롭게 후기부터 한국어를 이수하는 학생들로서, 남학생이 21명, 여학생이 74명으로 전부 95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일본 대학교의 한국어 수강자는 남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여학생들의 비율이 크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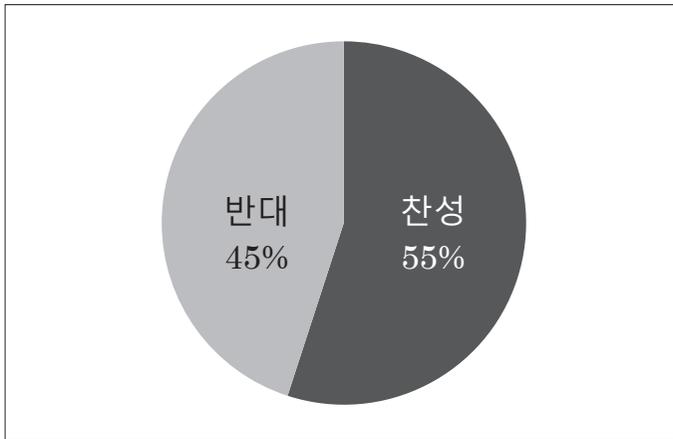
4. 조사결과

4.1 조사대상

이번 조사에서 미흡자료를 제외하고 유효자료로 쓰인 분석대상은 전부 89명으로 그 중, 여학생은 70명 (전체의 78.6%) 남학생은 19명 (전체의 21.4%) 이었다. 평균연령은 여자가 19.4살, 남자가 19.2살로, 대부분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중심이었다.

4.2 수업일탈행동에 대한 교사규제행동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수업일탈행동으로서 문제시되고 있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그림 1〉 스마트폰사용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한 찬반율

대해서 주목하고, 그에 따른 강경한 교사의 규제행동 (교사의 주의, 벌점,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참가율을 0점 처리 (결석처리) 하는 것)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비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찬성이 49명 (55%), 반대가 40명 (45%) 으로 분류되어, 수업일탈행동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해서는 학생들 또한 과반수 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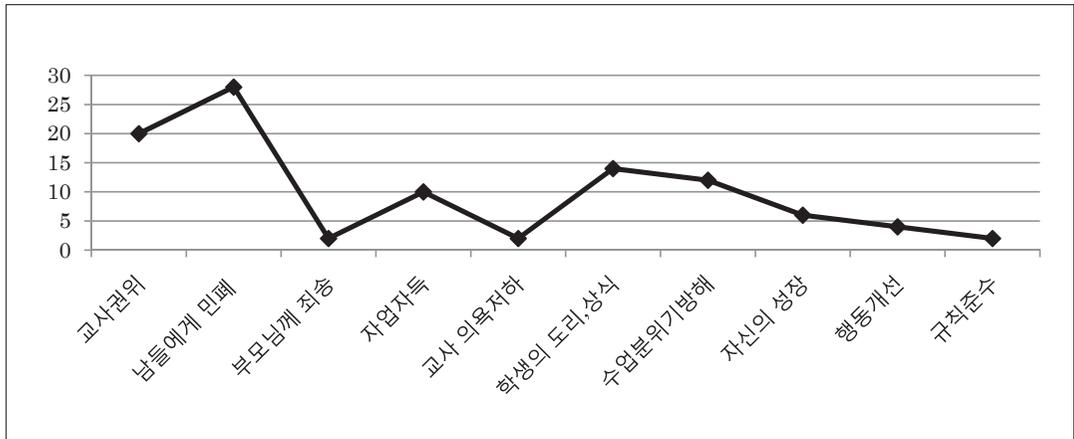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과반수 이상의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을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함께 교사의 규제행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효과적인 수업전개를 위해 불필요한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교사의 행동개입을 받아들일 적극적인 자세가 이미 동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3 교사의 규제행동에 관한 대학생들의 의식 (찬성그룹의 경우)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 (경우에 따라서는 결석처리) 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의식수준을 두가지로 구분해보면 <수업진행상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룹 (55%)> (이하, 찬성그룹) 과 <강경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룹 (45%)> (이하, 반대그룹)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찬성그룹의 경우, 자유기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찬성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10 가지 이유가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권위준수 (예: 교사의 지시에는 따라야 한다.)
2. 남들에게 민폐 (예: 다른 학생들의 의욕을 저하시킨다)
3.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예: 부모님께 죄송하다)
4. 자업자득 (예: 성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5. 학생의 본분 (예: 학생으로서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6. 교사의 의욕저하 (예: 교사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7. 수업분위기 방해 (수업분위기 및 학습의 방해가 된다)
8. 자신의 성장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9. 행동개선 (예: 일탈학생들의 행동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10. 규칙준수 (예: 교사가 정한 규칙이니까 지켜야한다)



〈그림 2〉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한 찬성이유 (찬성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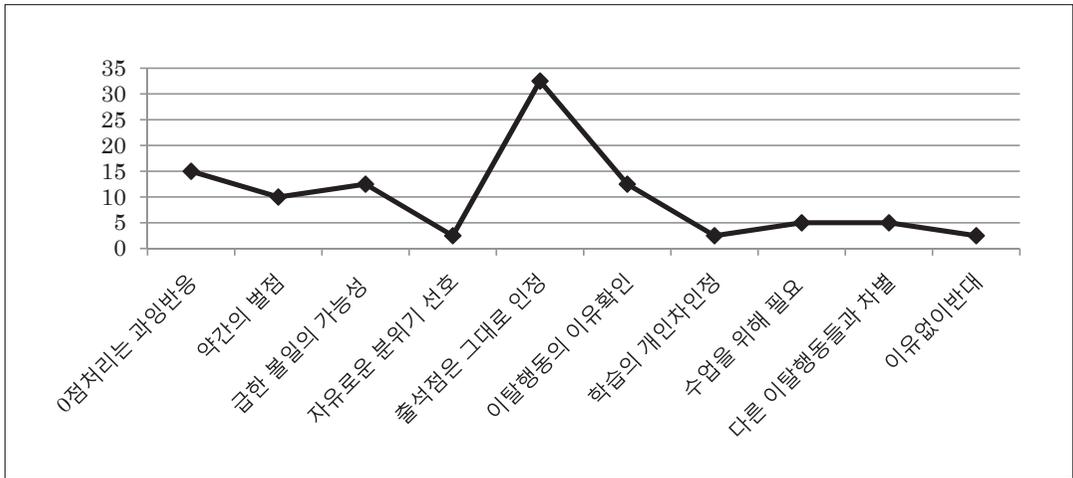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 (경우에 따라서는 결석처리) 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를 알아보면, 높은 순서부터 <남들에게 민폐> 가 28%, “교사가 하는 말은 잘 따라야하니까” 등의 <교사에 대한 권위준수> 가 20%, “수업에 집중하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이니까” 등의 <학생으로서의 본분> 이 14%, <수업분위기를 방해하니까> 가 12%, “성적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등의 <자업자득> 이 10%,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가 6%, 일탈학생들의 <행동개선> 이 4%, <교사의 의욕저하> 및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규칙준수> 가 각각 2%로 나타났다 (그림 2).

4.4 교사규제행동에 관한 대학생들의 의식에 대해서 (반대그룹의 경우)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반대그룹의 경우, 다음과 같은 10 가지 이유로 구분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 점처리 (결석처리) 는 과잉반응 (예: 출석했는데 출석점을 0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벌점처리로 대응 (예: 약간의 벌점으로 대처)
3. 급한 불일의 가능성 (예: 급한 불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4. 자유로운 분위기 선호 (예: 수업은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받고 싶다)
5. 출석점은 그대로 인정 (예: 출석한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6. 일탈행동 이유확인 (예: 교사는 행동규제 하기 전에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7. 학습의 개인차인정 (예: 학습과 이해도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8. 수업의 필요도구 (예: 스마트폰을 수업도구로 이용 (수첩, 시계) 하고 있다)
9. 다른 일탈행동과의 차별적대우 (예: 다른 문제행동이나, 즐기, 다른 과목공부하기 등은 들키기 어려운데, 스마트폰 사용만 규제받는다)
10. 이유없이 반대 (기본적으로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해서는 반대).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출석점은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가 32.5%, <0 점처리 는 과잉반응이다> 가 15%, <급한 불일이 있을 수도 있다> 및 <일탈행동의 이유확인필요> 가 12.5%, <약간의 벌점처리> 가 10%, <다른 이 탈행동들과 차별적인 행동> 및 <스마트폰의 수업도구로서의 역할 (수업에 필요하니까) 가 5



〈그림 3〉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한 반대이유 (반대그룹)

%, 〈학습의 개인차 인정〉 및 〈자유로운 분위기 선호〉, 〈이유없이 반대〉가 각각 2.5%로 나타났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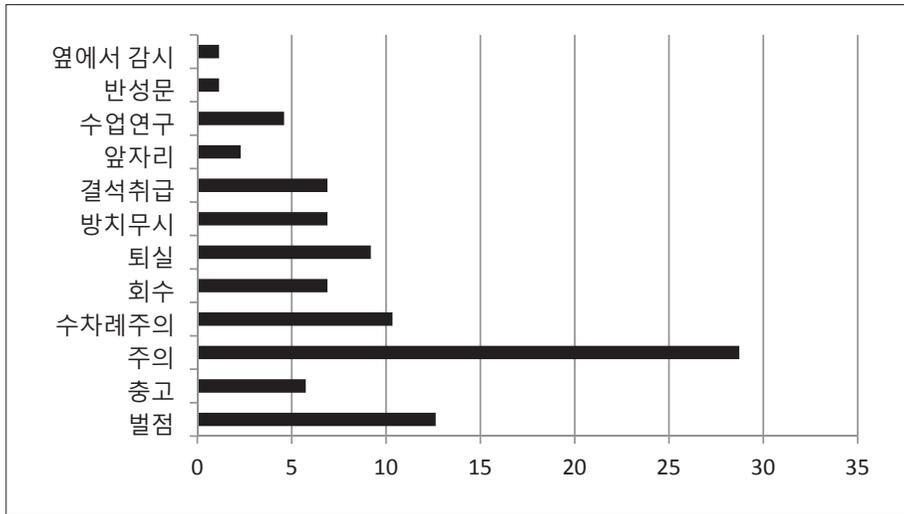
4.5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대처방법

(‘자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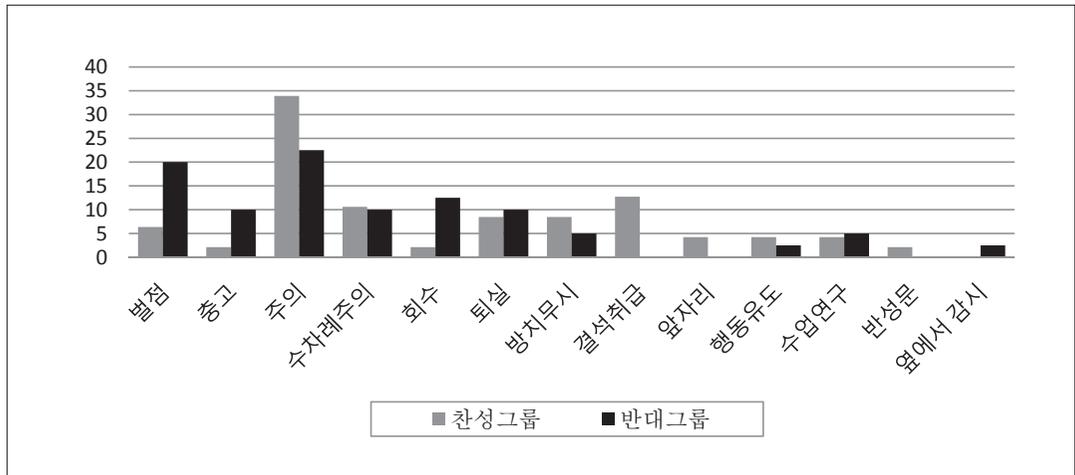
〈만약에 자신이 교사라면 어떤 규제행동을 하겠는가〉에 대한 자유기술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13 가지의 대처방법으로 분류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벌점주기
2. 한번 주의하기
3. 수차례 주의하기
4. 교실에서 내보내기 (퇴실)
5. 방치하기 (무시)
6. 결석취급하기
7. 옆에서 감시하기
8. 스마트폰 가방안에 넣기 (행동유도)
9. 스마트폰 회수
10. 자리바꾸기
11. 흥미로운 수업전개 연구하기 (수업연구)
12. 반성문쓰게하기
13. 성적관련 충고하기 (충고)

분석 결과,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한번 주의를 준다〉가 28.7%, 〈벌점을 준다〉가 12.6%, 〈여러번 주의한다〉가 10.3%, 〈퇴실 시킨다〉가 9.19%, 〈결석취급한다〉와 〈스마트폰을 회수한다〉와 〈방치한다 / 무시한다〉가 각각 6.9%, 〈성적과 관련된다고 충고〉가 5.6%, 〈교사 스스로 흥미로운 수업을 위해 연구한다〉가 4.6%, 〈스마트폰 가방안에 넣게하기 (행동 유도)〉가 3.5%, 〈앞자리로 이동〉이 2.3%, 〈반성문쓰기〉와 〈옆에서 감시〉가 각각 1.15



〈그림 4〉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방법 (전체비율)



〈그림 5〉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사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대처방법 (그룹별비율)

%로 순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처방법 (자신이 교사라고 상정했을 때 취하고자하는 행동) 을 다음과 같은 3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1) 대화를 통한 규제 (〈한번/수차례 주의하기〉, 〈충고〉;44.6%), 그 다음으로서는 (2) 성적반영을 통한 규제 (〈별점〉, 〈결석 (출석점 0 점) 처리 19.5%)), 그리고 (3) 행동적인 규제 (〈퇴실〉, 〈회수〉;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한 〈찬성그룹〉 과 〈반대그룹〉 을 나누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대처방법을 분석해보면, 〈찬성그룹〉 의 경우는 〈한번주의〉, 〈결석처리〉, 〈수차례주의〉 등의 순으로 높았지만, 〈반대그룹〉 의 경우는 〈한번주의〉, 〈별점〉, 〈회수〉 등의 순으로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그림 5). 더 깊은 고찰을 위해서는 차후의 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똑똑한 전화’ 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는 어느새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이어져, 자신의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시켜 가야 할 소중한 시간들이 빼앗겨버리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다.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반 사회인 안에서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의 국제사회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수업목적외 사용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 및 제재에 대한 기본적인 대학생들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마트폰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교육상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을 목적하에 대학생들 자신의 대처방법에 대해서 의식조사를 시도했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학습자의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상황을 전제로하여 자유기술의 형태로써 의견을 모아 분석했다.

그 결과로서, 스마트폰의 사용과다에 대한 교사의 강한 규제행동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바라보는 그룹이 전체의 55%인 반면, 반대하는 의견도 45%의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반대입장의 학생들의 자유기술문을 분석해 보면, 반대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별점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10%) 이 있음을 감안하면 교사의 규제행동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학생들도 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와 같은 결과로 바라볼 때, 효과적인 수업전개를 위해서 교사는 적절한 규제를 도입해갈 필요가 있으며 평소부터 학습환경조성을 위한 동기부여를 유도적으로 실천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조사보고서 (2013) 에 따르면 초·중고 교내 스마트폰 이용제한 관련규제에 대해서는 성인 (92.3%) 뿐만 아니라 청소년 (66.9%) 들도 과반수를 넘게 찬성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학생들 또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대해 위험률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 규제 내용을 적용시키는 경우, 조레 때 거두고 종레 때 돌려주는 방식의 스마트폰 수거 반환이 51.7%, 수업시간 사용적발시 벌점 및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 36.6%로 전체 90%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아이치현 (愛知県) 의 산업도시 가리야시 (刈谷市) 는 자발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작년 (2014) 학기초부터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9시 이후는 부모님에게 스마트폰 단말기를 맡길 것”, “개통시 부모님 개입속에서 유해 사이트 열람을 제한하는 필터링을 서비스 받을 것” 등의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가리야시가 이런 규칙을 만든 것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따른 문제가 학습환경이나 학습의욕에 대한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가출이나 청소년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일탈행위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뇌 발달을 위해 2세 이하 유아에게는 스마트폰이나, TV, 인터넷을 처음부터 접촉시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절한 개입과 대처를 소홀히 하다가는 일상생활의 느리고 약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 팝콘 브레인 (popcorn brain) 으로 아이들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연구 결과에서 교사규제행동을 반대하는 경우, 그 반대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출석하면 반드시 출석점수가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가장 뚜렷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출석만 하면 학점은 딸 수 있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시켜, 앞으로의 대학교 과목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출석점이라는 표현을 삼가하고 적극적인 수업참여여부를 묻는 수업참가율 혹은 수업공헌도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일탈행동들과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사용이 눈에 띄기 쉽기 때문에 교사로부터 규제받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교사의 규제행동에 있어서 스마트폰 뿐만이 아닌 일탈행동 전반에 걸친 교사의 일관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한번 재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의 규제행동은 <강한 규제를 하기 전에 먼저 이유를 묻고나서 (유기술문 인용)> 라고 있듯이 일방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아닌 대화와 배려를 통한 교육적 자세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바탕으로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수업형태를 유지, 개발해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수업태도개선 및 학습동기부여로 연결되리라 생각된다.

그와 더불어 시대의 흐름을 생각했을 때 ‘중독되기 쉬운 스마트폰’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숙해지기 쉬운 스마트폰’으로서의 긍정적인 특성을 살려 수업형태나 수업도구로써 응용해가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단지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수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구축해가는 새로운 방향성 또한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수그리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얼굴을 보자고 만난 식사자리에서조차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수그리고> 정수리를 맞댄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스마트 혁명’이 급물살을 타는 지금 이 때야말로 단말기를 통한 문자교환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고개를 들고> 눈을 맞대어가는 대화의 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 대학이 활발한 인간대 인간의 살아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교육을 중점으로한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 더한층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바라며, 디지털 디톡스(Detox)의 역할을 하며 흥미진진하고 가슴설레이는 배움의 장으로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경기일보 (2013) 어떡하나, 학교 밖 청소년들 (2013.11.21)
- 모바일 트렌드 전망 (2015) KT 경제경영연구소
- 문한국 (2013) 스마트폰 중독과 사회불안의 관계,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미진, 박건동, 이예영, 오지에 (2012) 스마트폰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 산케이신문 (2014) 가리야시의 스마트폰 야간제한 1달, 그 침투는? (2014.5.1)
- 하쿠호도 (2014) 전국 스마트폰 유저 1000명 정기조사, 일본 스마트폰 이용자 조사 결과
- 한국경제신문 (2013) 스마트폰에 빠진 대한민국, 생글생글 390호 (2013.6.24)
- 한국소비자신문 (2011)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 증상 심화 (2011.11.3)